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순 제2주일
2021. 02. 28. (나해) 제2257호

제2주보



대봉성당의
새로운 봄이다 2020.4
새로운 시작이다. 11-10
그림
+ B e r n a r d -

대봉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창세 22,1-2,9,7,10-13,15-18 **화답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2독서** 로마 8,31-34 **복음환호송** ◎ 길ियो 잔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르 9,2-10.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원장 | 곽종식 대건안드레아 신부

오늘 복음에서는 수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어 그들 앞에서 세상 어떤 마전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통해 당신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웠듯이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당신의 외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미리 보여 주는 장면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표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부활에는 십자가가 전제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겪었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잘 이겨낼 신앙을 요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적잖은 신자들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기 전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쩌면 돌같이 차고 굳었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비록 부족하지만,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고해성사를 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르익어갈수록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 점점 뿌리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 우리 자신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예고 받았습시다. 그러니 기쁘게 주님의 거룩한 변모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계절의 절기에 맞추어 자연이 변화되기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 나갈 때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문**

사라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였습니다(창세 11,29-30). 성경 속 사라는 한 남자의 아내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 25년간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이었던 이름은 사라로 바뀌었고, 25년의 세월이 사라의 어머니가 되는 길의 고단함을 온전히 겪어내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여긴 건 대개의 여인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었고 사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창세 12,10-13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했습니다. 제 일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묵묵히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내라는 자리가 그런 것이었어. 아내는 지아비의 뜻이 무엇이든 따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어 말입니다.

창세기는 사라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엔 아브라함을 위해 후손을 챙기는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가르를 아브라함에게 안깁니다. 아내이기 위해, 어머니가 되기 위해, 사라는 지독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지요. 사실 구약에서 ‘아들은 하느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창세 15,2). 사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진득하니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드세요.”(창세 16,2) 사라는 하느님을 믿으나, 하느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매우 둔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에 사라는 웃음으로 무시하기도 했으니까요(창세 18,12-13). 사라는 아들이란 존재를 하느님 약속의 표징이 아니라 자신을 추켜 세우기 위한 도구로까지 여깁니다. 창세 16,2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자면 조금 다른 의미가 전해집니다. “그 여종을 통해 아마도 제가 세워질지 모르잖아요.” 사라에게 아들은 어머니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제 갈망이 투사된 도구가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가르의 배가 부를수록 사라는 제 삶을 불안해 합니다. 하가르가 아이를 아브라함에게 안긴 후에는 제 존재의 가치를 세우기는 커녕 질투와 분노로 제 모습을 잃어가는 사라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라는 이사악을 얻고도 하가르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창세 21,8-10에는 하가르의 아들 이스마엘이 웃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라를 소개합니다(우리말 성경은 이스마엘이 ‘놀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웃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웃고 즐기는 이는 사라의 아들 이사악이어야만 했지요. 웃음은, 그 행복은 사라 자신의 것만이어야 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가르와 그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야 맙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사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사라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라를 통해 우리의 ‘모성애’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슬프고 애달픈 모성애와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희생하고 무너지고, 때론 지독스레 배타적이고 무모할지라도 가족이 괜찮으면 모든 게 괜찮다는 것이 우리의 ‘모성애’가 아닐까요. 그것이 과연 모성‘애’라고, ‘사랑’이라는 말마디와 어울리기는 할까요, 한 여인의 삶이 다른 이를 위한 불쏘시개로 지퍼진 슬픈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사라를 통해 한 가지 묻게 됩니다. 제 삶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 행여 지금의 제 본디 모습을 잃어가는 건 물론이고 하느님의 뜻마저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순리대로 살아라’. 신앙인은 ‘순리’를 하느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라를 통한 하느님의 섭리는 제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경험하고 난 후에야 후회와 반성을 하는 일은 대개 지금의 삶이 아닌 ‘내일의 삶’에 대한 무모한 갈망과 집착의 결과로 드러나는 건 아닌지, 사라를 통해 묵상해 봅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잠언 8,30)

성정하상본당 | 배지현 플로라

파스카를 처음 접한 것은 2012년 겨울이었다. 그해 여름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개신교만 다니던 나에게 천주교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세례반 교리 공부를 통해 하느님이 더욱 궁금해졌던 찰나 ‘파스카 청년성서모임’을 소개받았고, 바로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창세기 속 하느님은 내가 알던 하느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 하느님이라면 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만 그려졌는데, 창세기 속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도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하셨다. 하지만 열 번의 탐공부와 연수를 통해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해였다. 아버지 또한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 밧기만 했던 아버지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만 바라보며 20년 넘게 미움 속에서 지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 발 물러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쩌면 당신 또한 흐트러진 가족 안에서 고통받았을 한 사람일 것이란 생각에 아버지와의 시간이 한결 편해졌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하고 늘 불안했던 마음은 하느님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위기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후 성경 공부에만 그치지 않고 ‘말씀의 봉사자 파견’을 받았다. 하느님의 말씀 속에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청년사도직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이때 사제들이 서품성구를 정하듯 말씀의 봉사자들도 파견성구를 정하는데, 나의 파견성구는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잠언 8,30)”이다. 이 말씀이 어릴 적 모든 상처들로 뽀뽀 싸여있는 나를 꼬옥 안아주고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 주었다.

이제야 하느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위안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한결같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일 한 번 제대로 축하해 준 적 없으셨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올해는 문자로 축하를 전하고 싶어 오빠에게 문자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투박한 손으로, 잘 보이지 않아 미간을 찌푸려가며 문자를 누르고 계실 아버지의 모습에 이미 충분한 생일 선물을 받은 듯하다. 우리 아버지 또한 작지만 변하고 계시는 모습에 새삼 기분이 좋아진다.

하느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은 강한 내면의 힘이 생긴다. 그 힘은 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또한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늘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느님 말씀에 깨어 지내는 신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파스카청년성서모임을 조심스레 추천해 본다. 누구나 모두, 그분 앞에서 즐거이 뛰어놀기를! 아멘. 

※ 본 내용은 2021년 대구주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공모 당선작입니다.

경기도 광주 태생인 심아기(沈阿只) 바르바라는 오빠 심낙훈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한 뒤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성인들의 모범에 감동하여 하느님께 동정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으며, 이후로는 조용히 집안에서만 지내면서 모범적으로 교회의 법규를 지켜 나갔다.

1801년의 신유박해로 오빠가 체포되자, 바르바라는 포졸들이 얼마 안되어 자신도 찾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그들을 기다렸다. 마침내 포졸들이 들이닥쳐 체포하려고 하자,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천주의 성스러운 뜻에 순종하도록 놓아두십시오.”라고 말한 뒤, 스스로 그들 앞으로 나아가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런 다음 동요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서 한양으로 끌려갔다.

이후 심아기 바르바라는 포도청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며 모진 형벌을 받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형벌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초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세였다.

반면에 바르바라에 앞서 체포된 오빠는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무안(務安)으로 유배되었다. 그녀가 매를 맞다가 순교한 뒤에, 그녀의 오빠가 박해자들에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제 누이 바르바라에게 (천주교의 교리를) 가르쳐 포도청에서 매를 맞아 죽게 하였는데, 누이는 끝까지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아기 바르바라
(1783 ~ 1801년)



장명훈(문지노)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장명훈(문지노, 향년 45세) 신부님께서 지난 2월 21일 (주일)에 선종하셨습니다. 2월 23일(화)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신부님의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가톨릭여성교육관
갤러리 1981**

교구 여성위원회 발자취 사진전

일시: 3.2(화) ~ 3.14(일) 2주간

장소: 갤러리 1981 (교육원 다동 1층)

주최: 교구 여성위원회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프로그램 안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대구가톨릭평화방송이 작은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스통 신부의 보듬깨살’

(보고 듣고 깨달은 **살**가운 이야기들 ...)

방송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10분 ~ 30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야” 수요일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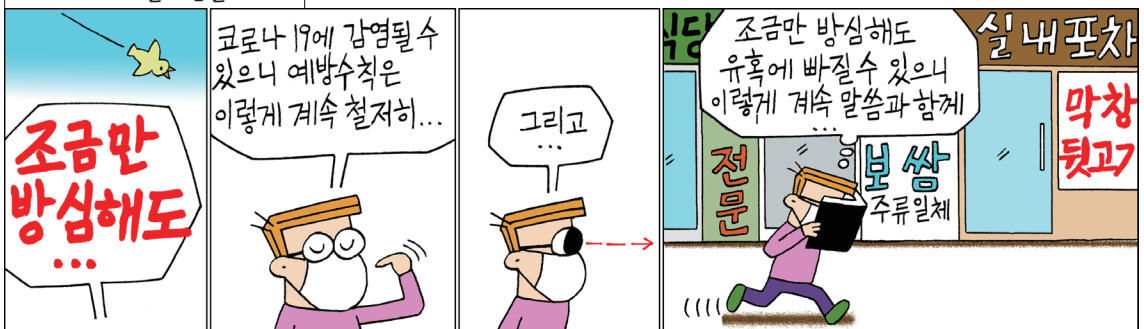
진행 : 이상재 가스통 신부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영상 채널 :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가톨릭생활 - 유튜브 채널

YouTube ‘가스통 신부의 보듬깨살’ / news.catholic.or.kr (goodnews)

방심은 절대금물!!

박성규 엘리지도



미사 안내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3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	---------------------	-------------	------------------------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3.7(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korvocation@columban.or.kr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도회 성소자 초대

일시: 개인 상담 후 결정

대상: 봉사와 선교에 관심 있는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성소담당, (010)3105-818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수도원 체형

일시: 코로나 검사(1박 2일)를 제외한

4박 5일 이상(조정가능)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이 있는 39세 이

하의 가톨릭 미혼 여성 / 인원: 1~2명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교육 | 모집

사제와 함께하는 안동교구 문경마원

성지 도보순례(성 이윤일 요한 순례길)

일시: 3.19(금)~21(일)

장소: 문경관아에서 상주옥터

참가비: 2만원(숙박제공) / 12명(선착순)

문의: 담당신부, (010)9944-0145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

리카르도 샤이(Ricardo Chailly)가 지휘하는 94명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90명의 라스칼라 극장 합창단, 4명의 솔리스트[독창자]가 협연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희생자 추모의 밤' 공연

상영기간 : 3.2(화) ~ 30(화)

상영관 : CGV대구현대(일반관)

CGV ICECON

(월간오페라)레퀴엠 5천원 할인쿠폰



쿠폰번호 : 3039096



+ CGV 빠른예매

CGV APP 로그인 > 메인화면 하단 ICECON 인 (월간오페라)레퀴엠 예매하기 > 극장, 시간, 좌석 선택 > 할인쿠폰 > CGV할인쿠폰 > 쿠폰번호(3039096) 등록 > 쿠폰선택 > 적용 후 결제하기

가톨릭피부과 의원
CATHOLIC SKIN CLINIC
SINCE 1963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팔순(투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정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을받은요양기관

(재)대구구현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건강검진은
집인병원

위·대장 내시경
STD검진 일반검진

! 대표전화 | 1688-7667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2021년도 예비신학교 입학 및 개학미사
 일시: 3.14(일) 14:00 중1~대학·일반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교육 | 모집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통독 40주간 모집

일시: 4.4(일)~2022.2.5(토)

신청: 1.22(금)~3.14(일) / 4만원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http://bible40weeks.org>

제32기 가톨릭음악원 연구생 모집

개강: 3.6(토) 10:00

원서교부: 2.1(월)~28(일) 9:00~17:00

문의: 255-4847

그레고리오성가 강좌(6기) 모집

개강: 3.7(일) 14:00

장소: 삼덕동 톡쟁베네딕도수녀원

베네센터 1층 강의실

내용: 기본이론(15주) 및 실습(30주)

문의(필수): (010)2805-8504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하느님과 함께 쓰는 나의 오경

일시: 3.17 매주 수 10:00(11주)

강사: 윤일마 수녀

교육비: 9만원(교재 포함)

문의: 바오로딸, (010)6681-5185

2021년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화)

구약반: (금) 10:00, (화) 20:00

신약반: (월) 10:00, (목) 20:00

심화반: (금) 10:00, (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학산새별학교 교육생 모집

내용: 검정고시 시험대비 교육지원

대상: 중고등 검정고시 학력취득 희망자

신청: 전화 및 내방 접수

문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634-7230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은주(리나) 수녀, 657-1295

2021년 1학기 이콘, 황금배경템페라화 모집

일시: 3.10~6.9 매주 수

주 1회(3시간, 14주)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하양)

강좌: 이콘화, 황금배경템페라화

문의: (010)3548-3151

제3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3.29(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교실: 월, 목 14:00 / 19:00

대구CEO합창단: 화, 수 14:00 / 19:00

장소: 평생교육원(용산역 4번 출구)

문의: (010)3512-1565

코로나로 임시 정원 5명(기초이론포함)

예수회 실시간 영상 강의(ZOOM)

개강: 3.11 매주 목 14:00~16:00(11회)

주제: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강사: 권오면 신부 /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3월 4일(목)부터 교구 법원 개원합니다.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앞산밀북카페 봄강좌 취소 안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시책에 부응

하여 2021년 봄 강좌 및 영화 상영

은 취소되었습니다.

문의: 622-190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7~9

코리아알트만
 38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원름,투름 용달이사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레이저 백내장 노인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홍(대전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차리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